

신앙과 불신앙

이 명 직 목사(1890. 12. 2~19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 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가복음 1장에서. 제사장 사가라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

I. 사가라와 마리아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눅 1: 8, 28)

제사장 사가라는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다. 누가 보던지 사가라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성경의 풍부한 지식을 가진 어른이며, 신앙이 독실한 종교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마리아는 누가 보던지 무식하고, 연약하고, 경험 없는 한 여자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난, 두 분의 차이점은 명백하다.

II. 당한 시련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 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눅 1: 13, 31)

사가라와 마리아가 당한 시험은 비슷하다.

사가라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

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 많은 늙은이였는데, 천사가 나타나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전하였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전했다. 사가라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말은 예사일이 아니었다.

Ⅲ. 생리학상의 문제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일이 있으리이까" (눅 1 : 18, 34)

사가라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당한 일이 같은 것처럼, 천사에 대한 이 두 사람의 항변도, 또한 비슷하다.

사가라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함은 합리적인 당연한 주장이다. 나이 많아 경수가 끊어진 늙은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경험상으로는 학리상(學理上)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일이 있으리이까" 함도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남

편과 관계가 없이 처녀가 잉태한다함은 옛부터 없는 일로 괴이(怪異)한 일이며,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긍정할 수 없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항변은 옛날이나 오늘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아무 이론도 없고, 의심도 없고, 연구도 없이 생각없이 미신적으로 맹종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다.

Ⅳ. 불신앙과 신앙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라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리라 하더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라" (눅 1 : 20, 45).

사가라의 당한 시험은 절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마리아보다는 쉬운 일이었다. 사가라의 부인이 비록 늙었을 지라도, 옛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은 실증이 있으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권능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신앙으로 믿을 것이거늘, 다만 경수가 끊긴 여인은 생산할 수 없다는 지식의 판단으로, 완고히 고집

하여 믿지 못하고 반항하였으니, 이것이 큰 불신앙이다. 불신앙은 제일 악한 일인데(히 3:12), 오늘날에도 이처럼 적은 지식으로 인하여,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무조건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다가 진리를 더럽힌 일이 많은 것을, 우리 교회가 크게 주의해야 할 일이다. 만일 성경의 사실이 자기 지식에 맞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거니와 실상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어찌 사람의 3,40년의 경험이나, 약간의 과학적 지식으로 헤아려 알겠는가? 그러나 사가라는 자기의 경험이나 생리학상으로 결코 맞지 않다 하여, 자기 부인의 잉태한다 함을 믿을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이었다.

마리아에게 잉태하겠다는 선고는 마리아로서는 받아 드리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늙었지만 남편도 있고 90노인 사가라 잉태한

역사적 사실도 있지마는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한 일이다. 여자가 남자없이 잉태한다함은 생리적 원리로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함은 당연한 질문이다. 아무 이해와 분별력 없이 맹종하는 미신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마리아의 신앙은 일시적 감정도 아니요, 확실한 이해와 근거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아무쪼록 지적으로도 되지 말고, 미신도 되지 말고, 완전한 이해와 의지적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가 천사의 선고함을 받아 드리기 어려운 것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성례하기 전이므로, 유대나라의 법률에, 약혼한 처녀가 만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인데(신 23:23, 24), 만일 마리아가 잉태하였다하면 법률의 저촉으로 생명이 위태할 지경이요,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가 된다. 이 두 난관 사이에 처한 마리아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였겠는가? 나는 깊이 동정한다. 신앙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일리(—理)를 깨달으면, 의심이 일어나는데, 이 의심으로 더불어 싸워 승리한

다음에야, 비로써 명확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금(金)과 옥(玉)을 얻으려면 태산(泰山)을 무너뜨리고, 큰 바위를 깨뜨리는 수고를 한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데, 신앙은 오묘(奧妙)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쉽게 신앙하였다면, 그 신앙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못되고,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와 같이 고통하고 의심하고 시련을 당하는 중에서 완전한 신앙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비로써 천사의 말한대로, 자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담대히 믿었으며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이 신앙은 온 세계를 구원하는 신앙이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까지의 순서를 살펴보면 이렇다.

1) 마리아는 자기의 지식을 버렸다. 곧 생산에 대한 생리적 지식을 버렸다. 사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지식과 맞지 않는다하여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적은 지식을 버렸다. 오늘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가? 그 적은 지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2) 마리아는 겸손하였다. 자기를 “주

의 계집종이오니”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제일 잘나고 큰 줄로 안다. 자기만이 잘 생기고, 자기만이 잘 난 줄로 알고, 자기만이 유식한 줄 안다. 자기 혼자서 거울을 들여다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계 18 : 7) 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우리도 겸손하여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자.

3)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식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곧 초자연적 능력자이심을 믿었다. 마리아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리요하는 자세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다. 한 번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처녀 잉태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하고 단적으로 믿었다.

4)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의 응답이었다. 복종하는 정신이 없는 곳에, 참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나가서, 일곱번 목욕하면, 병이 깨끗하여 지리라 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이치에 당치 않은 것이

